'정읍다움' 재발견

3미 · 6품 · 9경, 지역 대표 핵심 콘텐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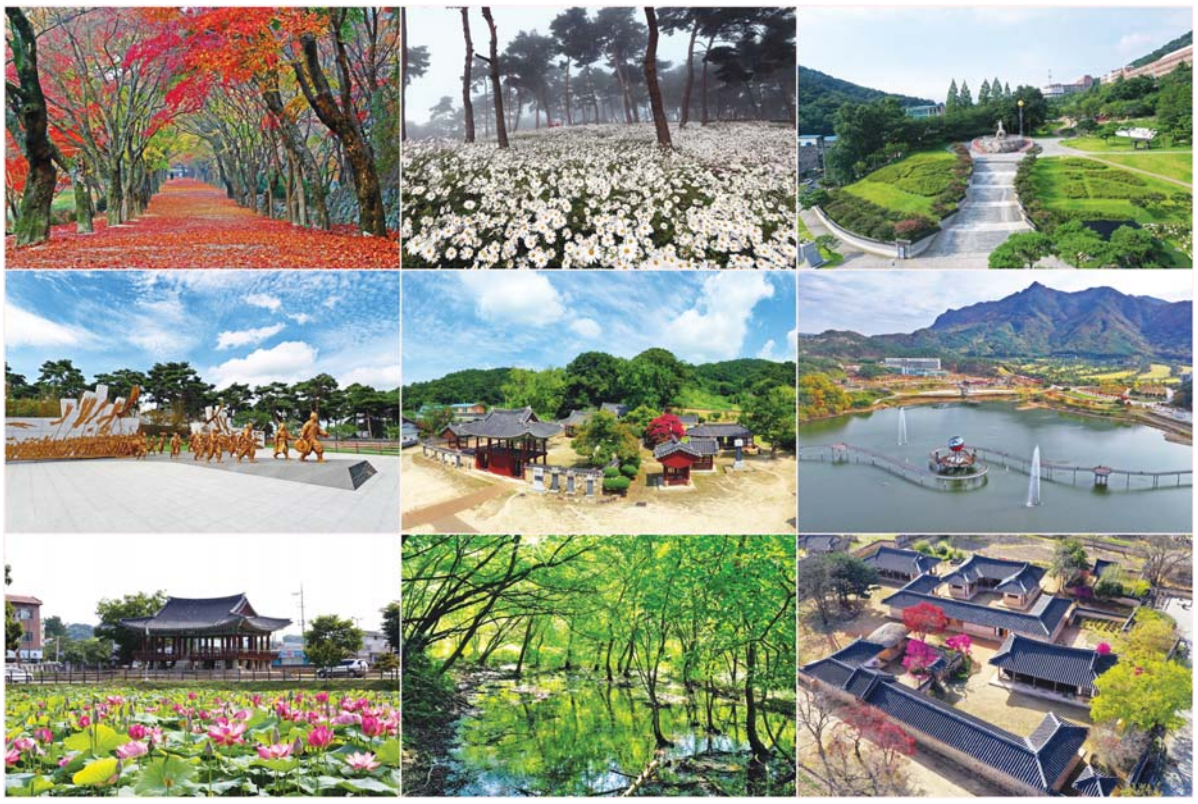
"정읍에는 참 좋은 것이 많은데, 하나로 꿰어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번 '정읍보물 369'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지역의 진짜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로 만들어 정읍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읍이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 같아요."

-시민 김모 씨(시민 제안 공모 참여자)-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가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 '정읍보물 369' 브랜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도약을 예고했다.

최근 정읍관광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표된 정읍보물은 단순한 상징물 지정을 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결합된 결과물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정읍의 맛(3미·味), 정읍의 특산품(6품·品), 정읍의 명소(9경·景)'로 구성된 '정읍보물 369'는 정읍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수를 담아내며, 향후 정읍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전망이다.



내장산 국립공원 등을 포함한 '정읍 9경'

▲뜨거운 시민 참여, '정읍의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

이번 '정읍보물 369' 선정 과정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이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시민 제안 공모에는 무려 1,500여 건에 달하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정읍의 맛과 멋, 그리고 자랑거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정읍보물찾기'에 열정적으로 동참했다.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1차 심사를 거쳐 '10미, 18품, 21경'의 후보군을 압축했다. 이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총 6,400여명이 참여해 정읍보물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뜨거운 경쟁과 관심 속에서 2차 후보군으로 '6미, 10품, 15경'이 추려졌고,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읍을 대표할 '3미·6품·9경'이 그 영예로운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정읍보물 369' 선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단순히 행정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정읍의 가치를 발굴하고 선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과정 자체가 정읍의 공동체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읍의 맛과 멋, 그리고 이야기를 품은 '3미·6품·9경'

그렇다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선정한 '정읍보물 369'는 과연 무엇일까? 면면을 살펴보면 정읍의 역사와 문화, 자연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매력들이 조화롭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읍 3미' 중 하나인 쌍화차.

시민과 함께 '보물369' 선정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계기

미식 문화 이끌어갈 '3미'
쌍화차 · 한우 · 산채비빔밥

지역의 정성 빚어낸 '6품'
귀리 · 씨 없는 수박 · 지황
막걸리 · 청명주 · 자생차

정읍의 자연 등 간직 '9경'
내장산 국립원 · 구절초정원
정읍사와 발빛사랑숲 등 9곳

'정읍 6품' 숙지황(사진 왼쪽)과 막걸리.

먼저 정읍을 대표하는 3미(味)에는 △정읍 쌍화차 (한약재의 깊은 향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전통차) △정읍 한우 (청정 자연에서 자란 우수한 품질과 풍부한 육즙) △내장산 산채비빔밥 (내장산의 맑은 정기를 품은 신선한 산채의 향연)이 선정돼 정읍의 미식 문화를 이끌게 된다.

다음으로 정읍의 풍요로운 땅과 정성이 빚어낸 6품(品)은 △정읍 귀리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건강 가치 인정) △정읍 씨 없는 수박 (높은 당도와 편리함으로 여름철 인기) △정읍지황 (우수한 효능의 전통 한약재이자 특화 작물) △정읍 막걸리 (지역 쌀로 빚은 깊고 구수한 서민의 술) △청명주(맑고 깨끗한 맛을 자랑하는 전통주) △정읍 자생차 (정읍의 자연을 담은 은은한 향의 차)가 이름을 올렸다. 이 특산품들은 정읍의 청정 자연과 농민들의 땀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정읍의 농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읍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9경(景)으로는 △내장산 국립공원(사계절 빼어난 풍광, 특히 가을 단풍의 절정) △구절초지방정원(가을철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구절초의 향연) △정읍사와 달빛사랑숲(백제가요 정읍사의 배경지, 아름다운 야경 명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한국 근대사의 전환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 교육의 장) △무성서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시대 성리학의 요람) △용산호(내장산 자락에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공간) △피향정(호남 제일의 정자로 불리며 연꽃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 △월영습지와 솔티숲(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간직한 힐링 및 생태체험 명소) △김명관고택(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문화재)이 선정돼 정읍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그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정읍보물 369', 정읍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정읍보물 369'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읍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읍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만이 간직한 고유한 음식과 특산품,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은 우리 시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정읍보물 369' 선정을 계기로 이러한 소중한 자원들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로 체계화해 정읍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향후 '정읍보물 369'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강화, 관련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브랜드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향후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정읍보물 369'에 대한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만들고, 이는 곧 정읍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정읍보물 369'를 통해 '정읍다움'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염원과 참여로 탄생한 '정읍보물 369'가 정읍의 눈부신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읍=김대환 기자